

1960년대 광화문 증건과 광화문 앞길의 변화

A study on a reconstruction of Gwanghwamun and fluctuation of boulevard in front of Gwanghwamun

강 난 형

Kang, Nan-hyoung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

송 인 호*

Song, In-Ho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Abstract

Gwanghwamun was dismantled and displaced to the east side of the palace, at that time, the Chosun Government General Building was constructed in the Gyeongbokgung palace. After the Korea war, it remained as a stonework as a result of the fire. In 1968, The Gwanghwamun came back in front of the palace. Then, why it was rebuilt in the 3rd Republic period? What was the reason for selecting concrete? Since the May 16 coup, the military regime had been utilized palace and surrounding urban space to show a visible practice of modernization. Attempting the combination of modern technology in the 1960s and traditional cultural property and reconstructing a city as a pretext called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was a typical mechanism of the 1960s. In this study, I start by assume that reconstructing Gwanghwamun(1968) was a part of project to change the surrounding urban space of Gwanghwamun than to preserve cultural assets. Two main contributions of the study are following. First, I collect available data on the reconstructing surrounding urban space of the Gwanghwamun and re-organize them in chronological order to make them as fragments of a map. Second, I analysis and identify the nature and phase of the Gwanghwamun reconstruction.

주제어 : 제3공화국, 서울의 경복궁, 중앙청(조선총독부), 광화문 증건, 권력과 유산 전용, 도시 기념비, 도시개발

Keywords: The 3rd Republic, Gyeongbokgung Palace in Seoul, Jungangcheong (Chosun Government General Building), Reconstruction of gwanghwamun, Power and colonial heritage, Urban memorial, Urban Development

1. 시작글

1-1. 연구의 배경과 대상

광화문은 조선총독부가 경복궁에 신축되는 시기, 경복궁의 동측으로 해체이전(1926.7-1927.4) 되었다. 그리고 한국전쟁의 결과 불에 타 육축만이 남아있었다. 수난을 겪은 광화문이 다시 경복궁 앞으로 돌아온 것은 1968년이다. 제3공화국시기에 왜 광화문을 다시 증건하였을까. 그리고 콘크리트- 목조보다 비싸게, 복잡한 형상의 거푸집을 제작하여- 궁궐의 정문 광화문을 지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5.16 쿠데타 이후 정권을 잡은 군부세력에게 경복궁과 주변도시공간은 근대화라는 가시적인 '형적'을 보여

주는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1960년대의 기술('손질')로 근대적 기술과 전통 문화재의 접합을 시도하고,¹⁾ 문화재 보존이라는 명분으로 도시를 건설하는 것²⁾은 1960

* Corresponding Author : inos@uos.ac.kr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B8A01055322)

1) 반동적 근대주의는 19세기 말 이래 독일에서 진행된 근대화과정으로 역사학자인 제프리 허프(Jeffrey Herf, 1984, *Reactionary Modernism*,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 파시즘이 반자유주의적이고 반계몽주의적인 성격과 기술적 근대성 사이의 모순을 찾다가 독일의 전통적인 혼과 서구의 기술을 접합시키려했던 일단의 사상가와 기술자들을 발견했다. 허프는 이러한 반동적 근대주의가 1960년대 제 3세계 국가에서 기술과 금융에 대한 광신의 형태로 나타났다고 설명한다. (전제호, 『반동적 근대주의자 박정희』, 책세상, 2000, 14~15쪽)

8 논문

년대의 대표적인 매커니즘이었다. 이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문화재를 영구히 복구할 수 있고, 도시의 경관을 고층화할 수 있는 재료이자, 새로운 생활양식의 도구로써 문화적 의미³⁾가 부여되었던, '1960년대의 콘크리트'라는 재료의 활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연구는 3공화국의 광화문중건(1968)은 유구를 복구하는 측면보다, 광화문 앞길의 도시 공간 변화를 꾀한 시도였다는 가설에서 시작된다.

연구의 대상은 군정시기를 포함한 3공화국기(1961-1972)의 광화문과 광화문 앞길⁴⁾로 한정하였다. 이 시기에 광화문 앞길의 폭이 53미터에서 폭 100미터로 넓혀졌고, 광화문이 건춘문 북측에서 경복궁 정면으로 이건 되었다.

1-2.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광화문 앞길의 변화를 시기적으로 정리하고, 파편의 자료들을 참고하여 지도로 만드는 것이다. 아직 1960년대 광화문

앞길의 변화를 지도화한 시도가 없다.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큰 변화가 있던 시기이므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1960년대 사료발굴을 통해 지도와 함께 분석하고, 광화문 중건의 성격과 위상을 규명한다.

광화문 앞길의 변화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항공사진(1966)과 지적도(1967, 1977), 군사혁명1주년 산업박람회 도면(1962), 국립종합박물관 배치도(1972), 국가기록원 소장 도시계획공문서를 활용했다. 광화문 중건 전후과정을 3개의 지도(1962-1964, 1964-1967, 1967-1968)로 작업하여 구 조선총독부, 광화문, 경복궁의 사적경계 등을 표기하였다. 광화문 중건 이전에 구 광화문 유구와 앞길이 어떻게 이용되었는지는 3공화국 시기에 생산된 신문기사 등의 사료를 최우선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지도 작업을 서울시가 발표했던 청사진, 건축가가 게재했던 건축잡지 글, 논쟁기사와 함께 분석하여 광화문 중건의 성격을 도시공간 안에서 해석하고자 했다.

2. 1960년대 초 구 광화문과 그 앞길의 성격

2-1. 선행연구를 통해 본 1960년대 이전 광화문 앞길의 성격

경복궁과 권력에 대한 연구는 조선시대부터 식민지시기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경복궁 안의 조선총독부 박물관에서부터 박람회까지 조선총독부 철거 이후 경복궁 복원작업과 관련된 보고서와 논문들이 이를 말해준다.⁵⁾ 예술, 정치, 건축 분야에서 해방 전후 경복궁을 다룬 것은 최근이다.⁶⁾ 광화문 또는 경복궁에서 벌어졌던 국가프로젝트에 대한 연구는 공통적으로 정치권력이 어떻게 '전통'을 기획하였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최근에는 '새로운 사적' 만들기로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⁷⁾

5) 경복궁 관련 연구사는 아래를 참조하였다.

이강진, 「궁궐과 관아」, 『한국건축사연구1 분야와 시대』, 발인, 2003, 127~163쪽/ 한동수, 정봉구, 「1945년 이후 경복궁 연구의 성과와 과제」, 2006, 서울학연구

6) 광화문, 경복궁을 중심으로 문화재 권력문제를 다룬 논문: 하상복, 「광화문의 정치학: 예술과 권력의 재현광화문과 정치권력」, 정치사상연구, Vol.17 No.1, 2011/ 박계리, 「총무공 동상과 국가 이데올로기」, 한국근대미술사학, Vol.12, 2004/ 정호기, 「박정희 시대의 '동상건립운동'과 애국주의」, 정신문화연구, vol30 no1, 2007/ 김미정, 「1960-1970년대 한국의 공공미술: 박정희시대 공공기념물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한국근현대미술사 박사학위논문, 2010./ 박혜성, 「1960-1970년대 민중기록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미술이론전공 석사학위논문, 2003/ 김지홍, 「1960-70년대 국가건축사업과 전통의 재구축」,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 김대호, 「일제강점 이후 경복궁의 훼손과 활용(1910~현재)」, 서울학연구, no29, 2007,

2) 서울시는 철궁, 종묘 등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도시개발로 비판을 많이 받았다. 당시 서울부시장이었던 차일석은 이에 대한 답변으로 문화재에 대한 의견을 신문지상에 발표하였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고도와 문화재를 보존하고 후세에 전하는 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과거의 형태를 그대로 고스란히 미래에 전해주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가령 1960년대라는 시점에서 개발을 통하여 그 형적을 보태어 전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후자를 선택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뒷날 선조들이 어떻게 손질했는가를 말해주자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건설을 통하여 문화재를 시민과 더욱 접근시키자는 것이다.”(경향신문, 1967.0.27/재인용: 차일석, 『영원한 꿈, 서울을 위한 증언』, 2005, 116쪽)

3) 콘크리트는 적층하여 높이 지을 수 있는 재료로써, 아파트와 입체고도로 등 도시의 생활양식을 크게 변화시켰다. 이 때문에 '문화의 척도'라고 까지 정의되었다.

“오늘날 문화의 척도는 시멘트의 사용량에 달렸다.”(삼척시멘트 공장 기공식에서 박정희, 경향신문, 1966, 8, 31)

4) 광화문 앞길, 육조대로, 육조앞길, 광화문동, 캐피탈스트리트, 세종로에서 광화문 광장에 이르기까지 시대별로 많은 이름이 지어졌다. 1960년대 가장 많이 사용된 명칭은 '세종로'이지만, 본 연구는 '세종로'보다 '광화문 앞길'을 사용했다. 누적된 역사의 층위로 공간을 접근하고 싶은 의도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1960년대 신문기사를 검색해 보면, 황토현(현 광화문 사거리)에서 경복궁 앞까지의 대로의 명칭은 '세종로', '중앙청 앞길', '캐피탈스트리트(capital street)' 등으로 불려졌다. 이 밖에도 '육조앞거리', '광화문 앞길'은 '세종로'이전의 명칭으로 함께 표기되기도 하였고, 교차로 지점은 '황토현 광장', '세종로 광장', '광화문 네거리'로 사용되었다. 이 중, 새로이 사용된 명칭은 '세종로'와 '중앙청 앞길', '캐피탈스트리트(capital street)'이다. 세종로는 해방직후 1946년 10월 1일 일제시기 경(町), 통(通), 정목(丁目) 등의 명칭을 동(洞), 로(路), 가(街)로 바꾸면서 함께 주요간선도로 12개의 가로를 새로이 명명하였다. 이때, '광화문앞길' 또는 '육조앞길'이라는 명칭 대신 호출해은 역사적 인물의 이름으로 세종로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세종로'라는 새로운 명칭을 붙이고 광화문이 그 자리에 없었음에도 '광화문 네거리', '황토현 광장'의 명칭이 사용되었다. 이는 길의 이름이 임의로 지어졌지만, 물리적인 건조물이나 지형과 상관없이 기억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광화문 앞길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홍순민(2015), 이순우(2011), 하상복(2010) 등이 있다. 이들은 시기적으로 조선시대/ 일제 강점기/ 해방 후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광화문 앞길에 대한 선행연구는 몇 가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첫째, 도성조영과 운영을 통해 연구되었다. 조선시대 연구자들은 동아시아에서 경복궁 앞 광화문 앞길을 특이한 계획으로 인식했다. 김동욱(2008)은 조선 초기, 6조대로(광화문 앞길)를 임금의 거동이 시작되는 장소이자 백성에게 의도적으로 노출되는 정치적 공간으로 정의했다. 홍순민(2015)은 이와 달리 고종시기, 광화문 앞길을 폐쇄적인 광장으로 규정했다. 실록, 승정원일기의 기록을 통해 실질적 운영(병문 설치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상구(2008)는 육조대로(광화문 앞길)를 동아시아 도성형식 전통위에 새롭게 형성된 집중관아구역으로 설명했다.

둘째, 광화문 앞길의 변화를 정리하였다. 식민지 조선 이후의 연구를 중심으로 대한제국기와의 비교가 이루어졌다. 이순우(2011)는 식민지 조선의 육조앞길(광화문 앞길)의 관아배치와 처소변경을 두 장의 지도(光化門外諸官衛實測平面圖(1907-1909)와 京城光化門通官有地一覽圖(1917-1922))를 중심으로 실증적인 사료 연구가 이루어졌다.

셋째, 공간의 정치학으로 통사를 정리하였다. 하상복(2010)은 기존의 역사, 건축논문의 사료를 이용하여 광화문이라는 공간에 드러난 국가권력의 정치성을 시대순으로 설명하였다. 예를 들면, 강한 국가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가 전문행정기술 관료체계를 동원해 근대화를 선도하였으며, 개인의 식견과 열정에 의해 구상되고 작동되었음을 주장했다.

본 연구는 광화문 앞길을 연구하면서 선행연구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조선시대 사유의 산물이라는 생각을 중심으로 역사연구가 시기적으로 집중되어 이루어져 왔다. 해방이후 광화문 앞길에 대한 연구는 다른 시각이 필요했다. 1960년대 광화문 앞길의 변화는 전후복구시기 문화재 보존보다는 도시건설의 명분이 더 컸던 시기였다. 광화문이 종합박

물관의 정문에서 광화문 앞길로 이동을 결정되는 과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

Tab.1 change of Gwanghwamun and boulevard in front of Gwanghwamun (1960년대 초 광화문과 광화문 앞길의 변화)

Date	change of Gwanghwamun 광화문의 변화	change of boulevard in front of Gwanghwamun 광화문 앞길의 변화
1867	Gwanghwamun reconstruction (광화문 재건 시작, 1867.5.17.)	
1917		Gwanghwamun station tram line (the 40th Anniversary Monument Hall of Gojong's Enthronement -Gyeongbokgung Palace) (광화문선 전차운행 기념비각-경복궁)
1923	candidated area of Gwanghwamun Relocation (Electrodeposition in Gwanghwamuntong /Josun Shrine) (광화문 이전 후보지 논의, 1923.9 (광화문동 전차교/조선신궁))	tram route extension of Gwanghwamun line (광화문선 전차노선연장)
1924	area of Gwanghwamun Relocation: Determined in palace(1924.5) (광화문 경복궁 영역으로 이전결정)	
1926	dismantling of Gwanghwamun-munru (광화문문루해체, 1926.7.20.) an inauguration ceremony Government building dedication (조선총독부낙성식, 1926.10.1.)	
1927	dismantling of Gwanghwamun-stonewall (광화문 석축해체, 1927.4)	
1929	Use the main entrance into the Josun Fair (광화문-조선박람회정문으로 사용)	
1952		Seoul urban reconstruction plan (Sejongro square plan) (전재복구계획-세종로광장계획)
1960	Gyeongbokgung Palace: Historic Landmark No. 163 (경복궁의 고적 제 163호 지정)	Government Complex Plan (정부종합청사계획, 1960.6.29.)
1962	Use Gwanghwamun as the main entrance of the Industrial fair, the first anniversary of Military Revolution (광화문-군사혁명1주년산업박람회 정문으로 사용, 1962.4.20.~6.5)	Jungangcheong reconstruction (Sejongro square plan) (중앙청 복구계획 (세종로광장계획변경))
1963	Gyeongbokgung Palace: Historical Site No. 117 (경복궁 사적 117호 지정, 1963.1)	
1964		National Heroes 37 statue (애국선현37인조상, 1964.5.11~1966.7.20.)

2-2.구 광화문 유구활용: 군사혁명1주년 산업박람회 구 광화문과 경복궁의 활용은 정권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⁸⁾ 경복궁에서 열린 5.16 군사혁명 1주년

8) 경복궁을 대하는 태도는 그의 정치적인 태도에서도 읽을 수 있다. 민족적 주체성으로 한국적 특색을 담은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1963년 대선 유세 다음이었다. 민족의 자주적인 주체성에 기반하여 한국적 토양에 맞는 민주주의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전재호(2000)는 이 시기까지는 선거국면에서 상대 정치인을 비난하기 위한 개념이었지 통치의 철학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민주주의'보다는 '민족적'이 뜻하는 '경제적 자립'을 더욱 강조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한국적 민주주의는 1966년 제 6대 대통령 선거의 승리이후 기존 헌법으로는 임기 연장이 불가능하였을 때, 삼헌개헌이 국가와 민족

7) 김지홍(2014)의 논문은 1960~70년대 (3공화국시기) '민족'과 '전통'을 중심으로 벌였던 건축사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전통('사적')만들기가 진행되었음을 정리한다. 이를 민족기념비라고 명명하고, 대표적인 국가사업으로 국가의 사당(현충사), 국민의 일상(민속촌), 국가시설(국회의사당)을 다루고 있다. 광화문은 '전통의 계승'을 주제로 한 국가건축사업의 틀에서 의도적으로 누락되어 있다. 민족기념비는 맞지만, (국가가 국민을 통원하여 대상물을 선전하고 행사하는) 국가와 국민의 관계설정이 없다고 말한다.

기념 산업박람회가 그 예이다.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사정권⁹⁾에게 미국과 군정비판세력은 빠른 시일 내에 군정을 끝낼 것을 요구하였지만, 군정은 이를 거부하였고, 적극적으로 정치선전을 위하여 박람회를 경복궁에서 개최한다. 국가의 기술과 경제발전을 선전하는 이벤트는 다분히 미국의 대한 정책을 의식한 것으로, 당시 케네디 행정부에서 ‘발전의 시대(Decade of Development)’라는 구호를 내걸고 제 3세계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우월성을 군사력보다는 경제적인 부흥으로 보이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창경궁에서 1억 6천만원 규모로 계획했던 산업 박람회를 10억 규모로 확대하면서 경복궁으로 장소를 바꾼다. 61년 11월말부터 박람회를 계획하고 2월에 규모를 정리하여 광화문을 정문으로 진입하는 구선원전 자리에서 박람회가 개최된다.(그림1) 이외에도 경복궁의 운영에 있어서 30경비대대가 서북쪽 태원전 일대에 자리잡아 20만 여명의 일대와 더불어 신문문이 폐쇄되고 경회루의 출입도 금지되었다. 경복궁의 내부공간은 남측과 북측 그리고 중앙으로 나뉘어 활용된다. 이는 일제시기 시정50주년기념조선박람회 개최 시, 남측에는 총독부와 박물관, 북측에는 관사(구선원전) 그리고 중앙에 조선박람회(1929)로 활용된 것과 유사했다.

일제시기와 1960년대가 주체가 다름에도 궁 안에서 박람회를 개최하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의도에 있어서 차이를 갖는다. 식민시기 박람회는 조선총독부의 이전과정에서 기획된 것이다. 먼저, 조선왕실 공간이었던 경복궁의 전각을 해체, 매각하고 경복궁 구역은 새로운 발전상을 선전하는 전시공간으로 사용되었다. 이에 반하여 1960년대의 박람회는 구정권 또는 식민시설과 대결하거나 지우기 위해 개최된 것은 아니었다. 한국전쟁이후 폐허가 된 중앙청을 앞에 두고 육축만 남은 광화문을 통해 진입했다. 이는 기존의 방식을 고수해서라도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방식이었다.



Fig1. Industrial fair in the first anniversary of Military Revolution(1962.4.20.~6.5) ©Seoul Museum of Hi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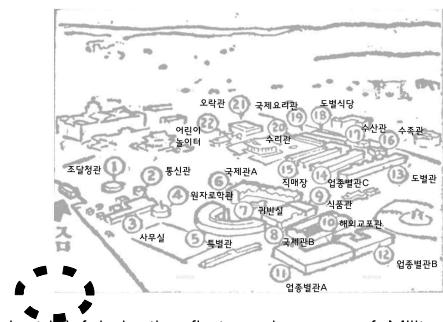


Fig2. Industrial fair in the first anniversary of Military Revolution (©The Kyunghyang Shinmun,1962,04,16)

2-3. 파괴된 중앙청과 광화문 앞길

제1공화국기(1948-60)에 중앙청은 독립한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장소로, 국가적 행사(대통령취임식, 3.1절, 광복절 행사 등)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장소였다. 그러나 정부청사 겸 의사당으로 사용되었다가 환도이후(1954)부터는 태평로의 국립극장(구 경성부민관)을 임대하여 사용한다. 6.25전쟁이후 중앙청의 화재피해¹⁰⁾를 복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이 시기부터 중앙청은 일제의 통치에 대한 극복과 새로운 정부수립을 상징하는 공간에서 반공을 강조하는 장소로 쓰인다.¹¹⁾ 중앙청을 정면에 두었던 광화문 앞길의 성격은 주로 혁명의 거리로 설명되었다. 1960년대의 신문기사를 살

을 위한 것이라는 논리의 정당화과정에서 등장한다.(전재호, 2000, 49~51페이지) 또한 박정희는 조선왕조로부터 제2공화국에 이르는 한민족의 근세와 근대사를 파벌의 역사로 보고 있다. 조선사회에서 조형된 병리적 정신성이 시작되었다고 설명한다. (하상복, 『광화문과 정치권력』, 서강대학교출판부, 2010, 214쪽)

9) 당시 초헌법적 기관,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유승(USOM)과 나란히 있는 청사(쌍둥이 빌딩)에 들어갔다. 59년 공무원사무처(총무처)가 정부청사를 짓기 위해 설계를 끝내고 들어갈 계획이었다. ICA(USOM) 측에서 청사확보를 위해 물색하던 중 토지제공을 조건으로 미국의 건설회사 빈벨의 설계로 똑같은 건물 두채를 지어 하나씩 나누어쓰자는 제의가 들어왔다. 후에 북쪽은 국가재건최고회의 경제기획원재무부, 남측은 원조기구 USOM(주한미경제협조처)가 들어가게 되면서 한미 경제관계의 상징적 존재가 되었다. (동아일보,1978,8,17)

10) 북한군이 인민군청사로 사용하다 퇴각하면서 지른 방화로 건물 내부가 소실되고 외부도 일부 파손된다. (조선일보, 1950.11.14.)

11) 제1공화국 정부는 중앙청의 상징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제2대, 제3대 대통령 취임식은 광복절 행사겸하여 중앙청 광장에서 이루어져 중앙청은 일제 통치에 대한 극복과 새로운 정부수립을 상징하는 공간이 되었다. 제2대 대통령 취임식은 6.25전쟁 중에 수행되었는데, 서울 환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임식과 광복절 행사는 중앙청 광장에서 진행되었다. 전쟁에서 화재피해가 복구되지 못한 중앙청에서 대통령은 반공을 강조하고 승전과 통일을 기원하였다.(김지홍, 「1960-70년대 국가건축사업과 전통의 재구축」,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140-141쪽)

펴보면, 광화문 증건 계획이 있기 전까지는 경복궁 또는 광화문의 역사에 대한 기사가 적었다.¹²⁾ 오히려 전쟁의 수난을 많이 받았던 대표적인 궁과 사라진 옛 도시 풍경으로 묘사된다거나¹³⁾ 3.1운동에서부터 4.19와 5.16까지 이어지는 혁명의 거리로 설명되는 등 ‘새 서울’의 이미지가 재현되었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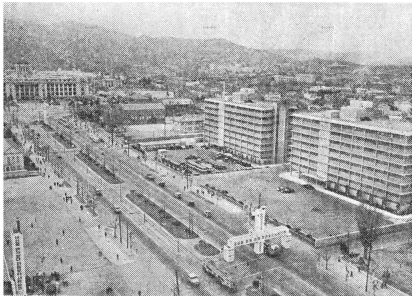


Fig3. Boulevard in front of Gwanghwamun
(©The Dong-A Ilbo, 1962.4.17)

광화문 앞길에는 광화문이 없었다. 광화문 앞길로 이견하자는 논의도, 문루를 증건하자는 논의도 없었다. 논의의 시작은 중앙청 복구가 시작된 이후였다.

3. 광화문 증건과 광화문 앞길의 변화

3-1. 근대유산으로 중앙청¹⁵⁾의 복구

군사혁명 이후 곧바로 구 중앙청사 복구기술위원회(1961)를 구성했고 청사 복구공사¹⁶⁾가 시작되었다. USOM과 나란히 있던 정부청사의 재무부, 경제기획원은 내각수반실, 내각사무처, 법제처 등과 함께 중앙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조선총독부청사를 중앙청으로 변용하기로 결정한 근거는 5가지였다.¹⁷⁾

12) 광화문을 키워드로 62년부터 69년 사이 기사를 검색해 보면 크게 복원관련 보도기사(37건), 복원논평(9건), 역사(5건)으로 역사관련 기사는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

13) 동아일보, 1963.11.21./ 매일경제 1967.09.26

14) 동아일보, 매일경제, 경향신문에서는 서울관련 통계, 사진, 도시계획 등 새로운 도시로의 서울에 초점을 맞춘 시리즈물(동아일보(새서울청사진(1)-(15), 조국(1)-(12) 시리즈), 매일경제(이것이 서울이다(1)-(22), 뉴코리아(1)-(25)), 경향신문(도시계획6백년 서울의 어제와 오늘(1)-(5)시리즈)이 활발히 연재되었다.

15) 미군정시기 조선총독부 청사를 미군정 청사로 쓰면서 붙여졌다. 수도에 있는 청사란 뜻에서 정인보(爲堂, 鄭寅普)가 번역해서 지었다.

16) 복구공사는 건축가 이규재(李圭宰)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1962년 11월 22일, 중앙청 복구 개청식이 그 자리에서 있었다. 이후 82년까지 중앙청으로 사용되면서 국무회의가 이루어지는 등 한국 현대사의 현장이었다.(문화체육부 국립중앙박물관, 1997,54쪽)

17) 박해인(2010)은 중앙청사로 수리된 경위를 설명했다. 경제적 효

첫째, 동양굴지의 서구식 근대건물이며 둘째, 침수 붕괴로 인한 피해 손실이 매년삼천만환에 달한다. 셋째, 동청사와 동등한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빨록’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약 칠십억환이 드는데 비해 이를 복구 완성하면 건물가치는 약 삼백억환으로 평가되고 수리비는 총평가액의 일할내외로 완전 복구시킬 수 있으며 넷째, 이를 철거하려면 칠억환이 소요된다. 다섯째, 수리사용으로 국민부담이 경감하고 분산되어 있는 중앙기구를 한 청사 내에 집중 수용할 수 있다.

즉, 신축공사비용, 철거비용, 수리비용이라는 경제적 인 요건이외에도 중앙청은 아시아 내에 지어진 서구식 높은 기술력의 건축물로서의 가치 때문에 다시 사용되었다. 광화문 앞길의 변화는 광화문이 아닌 중앙청의 복구로 시작되었다. 후에 중앙청 돔은 광화문 앞길을 확폭하는 중심축이자, 광화문의 방위와 위치를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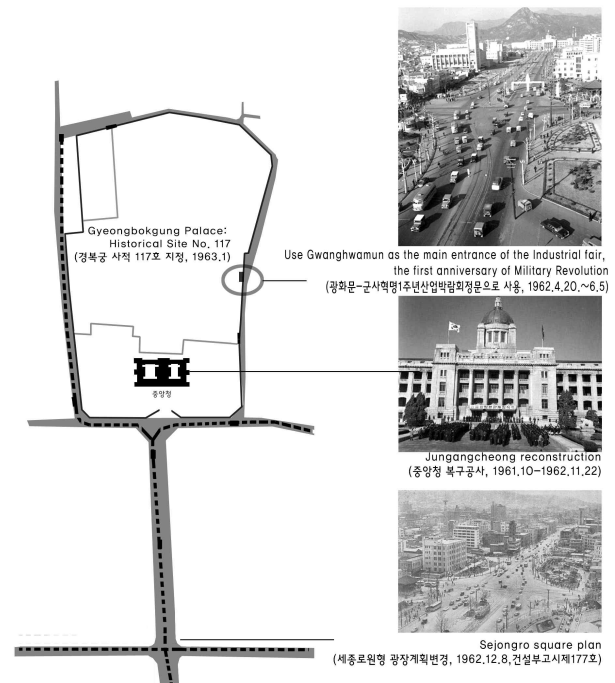


Fig4. Fluctuation of boulevard in front of Gwanghwamun
(1기: 1962-1964) ©Kang Nan Hyoung

3-2. 광화문 앞길을 ‘중앙청로’로

울성에 따른 미국정부의 제사용제한(1960년 주한미군원조사절단의 제외와 한미합동경제위원회를 통한 스미스 힌츠맨&그릴스 회사의 검토보고서)받았다. 이후, 미국 측 원조도움(공사비의 20%(5억7천여만원))으로 공사했다. 이 과정에서 1공화국에 대한 반감을 이용하여 조선총독부의 이력을 은폐되어 역사적 건립주체의 문제는 논의의 문제가 되었다. (경향신문, 「舊中央廳 廳舍復舊使用」, 1961.9.6.3면/재인용: 박해인, 김현섭, 「조선총독부청사 철거문제를 통해 본 한국 건축계의 의식변화에 관한 연구」, 2010,15-18쪽)

12 논문

중앙청을 복구한 이후 광화문 앞길(세종로)은 국가상징도로 또는 중앙청로(Capital Street)로 명명되었다. 동상을 세운다거나, 퍼레이트 행렬을 위한 지하도계획은 광화문 앞길의 새로운 기념비적 성격을 염두했음을 보여준다.

(1) 중앙청에서 남대문까지 애국선열동상

3광화국이 광화문 앞길에 했던 새로운 시도는 상을 세우는 것이었다.¹⁸⁾ 중앙청에서 남대문에 이르는 중간 녹지대에 석고상 37점을 학생들을 동원하여 세웠다. 중앙청에서 세종로까지는 21개의 상이, 시청에서 남대문까지는 16개의 상이 설치되게 되었다.¹⁹⁾(그림 5) 석고상들은 도시 기념비를 설치하기 위한 사전 모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국선현의 석고상(1964.5.11-1966.7.20.)이 철거된 다음날 바로 애국선열조상위원회²⁰⁾가 구성되었고, 이 석고상의 위인들을 다시 제작하여 도심 내에 배치하게 된다. 첫 도심 내 동상 작업은 광화문 앞길의 이순신²¹⁾ 동상이었다.



Fig5. National Heroes 37statue
(애국선현37인조상) ©National Archives

(2)광화문 앞길의 확폭(80미터)과 광화문 지하도

18) 세종로의 이순신동상이 선 자리에 이승만 동상이 있었다는 4.19 당시 기자의 회고(신동아.2000.1. '특별취재: 새정치국민회의 총재권한 대행 이만섭 회고록')는 오보였다. 세종로에 상이 들어선 것은 애국선열상(1965)이 처음이었다.(조은정, 「이승만 동상연구」, 한국근현대미술사학, vol 14, 2005)

19) 동아일보, 1964.5.12

20) 애국선열조상위원회는 서울신문사에 사무국을 설치하였다. 처음 총재는 김종필 공화당 의장이었고, 실질적 업무를 맡은 전문위원은 위원장에 김경승, 위원에 김종영, 김세중, 송영수, 김정숙 등 조각가였다. 기획분과는 위원장에 김재원, 위원으로 김상기, 김원룡, 류홍열, 조성옥 등 주로 학자들로 이루어졌고, 재정분과에 위원장은 이상구, 위원으로 이동준, 이한상, 조홍계, 김기택 등 실업인들이었다. 건립분과위원은 위원장에 서양화가 김인승, 위원으로 건축가 김수근, 서울시 제 2부시장 차일석, 서울대 교수 임영방이었고, 선전분과 위원장은 이춘성, 위원은 이원우, 조성옥, 김수근, 정성호였다. 이후 박종홍, 엄덕문, 이서구, 이승녕, 석주전 등이 참여하였다. (조은정, 2010)

21) (박계리, 2004) 석고상들은 서울 도심 내 곳곳에 동상으로 제작되어 뿌려진다. 1968년 세종로의 이순신을 시작으로 덕수궁 중화전 앞 (세종대왕,1968), 장충단 공원 (사명당,1968.5.11.), 사직공원 (이이, 1969.8.9), 효창공원 (원효, 1969.8.16), 서울시청 앞 (김유신1969.9.23), 제2한강교 (을지문덕,1969.10.14.), 남대문 뒤(유관순,1970.10.12.), 사직공원 (신사임당, 1970.10.12.), 제2한강교(정몽주, 1970.10.16.), 남산 시립도서관 앞 (정약용/이황, 1970.10. 20.)에 동상이 세워진다.

1960년대 초의 광화문 앞길은 각종 정치선전 공연과 시가행진이 많은 장소였다. 중앙청 복구 이후 기존의 53미터에서 서측으로 80미터로 확장된다.²²⁾ 또한 수도상징도로의 광화문 앞길에서 열리는 각종 행렬의 통과와 도시미관을 감안하여 광화문 지하도²³⁾(1966.4.19.~1966.9.30.)를 계획했다. 이 계획으로 군사퍼레이드와 차량 행렬을 위하여 도로 위를 통행하던 보행인들은 지하로 흡수되었다. 다른 이면에는 비역사적인 태도²⁴⁾가 엿보인다. 거대한 토목공사는 기존도시의 물길(청운천)을 지우고, 청경기념비전을 인근녹지대로 옮기는 등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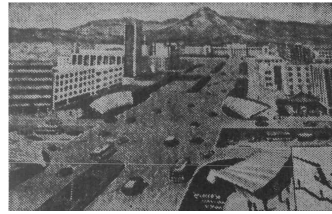


Fig6. A bird's eye view of
Gwanghwamun underpass
plan©Seoul Shinmun 1966.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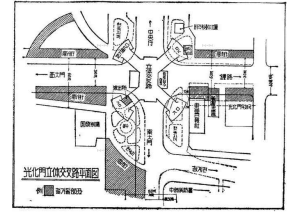


Fig7. Gwanghwamun
underpass plan (1966.3.15.)

서울시의 청사진(1966)을 통해 광화문 앞길의 성격을 읽을 수 있다. (그림 6)광화문 사거리에서 백악산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그려진 투시도에서, 중앙청은 소실점으로 광화문 앞길의 주인공이다. 광화문 앞길에는 여전히 광화문을 이건하고자 하는 논의는 없었고, 민족문화센터 건립사업의 일환으로 종합박물관의 출입문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 자리에 복원설계가 시작되었다.

(3) 광화문 앞길의 이순신동상

광화문 앞길(세종로)에는 다음으로 계획된 것은 이순신동상이었다.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택한 것은 중앙청(구 조선총독부) 앞에 놓인 위치와 관계로 설명하기엔

22) 양측 모두 국유지였기 때문에 서측 도로 확폭으로 기존의 공공시설이 철거된다. 서측 확폭 예정지에는 서울전신지급보험관리국, 경찰 기동대 순찰반, 종로보건소등이 해당되었다. (동아일보, 1966.3.5.)

23) 대립산업의 시공과 미립설계의 계획으로 지어진 광화문 지하도는 콘크리트 셸구조였다. 사방 출입구 24미터, 길이 8미터의 계단을 통해 네 방향의 진입이 594평방미터 넓이의 지하광장과 접속되어있는 거대 토목공사였다.

24) 광화문 지하도는 기존의 세종로 원형 광장에서 시작되었을 수 있지만, 역사적인 태도에 있어서는 달랐다. 기존의 세종로 광장계획은 전재복구계획(1952년 3월 25일자 내무부 고시 제 23호)으로 만들어진 19개의 신설광장 중에 하나로, 세종로의 확장과 함께 계획되었다. 종전의 53미터 폭에 연장 500미터이던 중앙청 정문기점 황도현 광장중점의 세종로를 100미터의 폭원으로 변경하고, 세종로 사거리에 기념비전을 중심으로 반지름 150미터의 원형광장(60700m2)이 계획되었다. 1962년 12월 8일자 건설부고시 제 177호로 종전의 32개의 광장규모는 대부분 광장이 축소되었는데, 세종로광장 또한 반지름을 102미터(33228m2)로 줄이게 된다.(김백영 「4.19와 5.16의 공간사회학」, 서강인문논총 38집, 2010)

무리가 있다. 이미 중앙청의 활용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었기에 “왜적을 물리친 행동” 때문에²⁵⁾ 세워진 것은 아니었다. 동상의 제막식, 박정희의 연설문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조국과 겨레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정신만 강조되어, 이를 1960년대 정신²⁶⁾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광화문 앞길에 건설의 역군상을 세우고 싶었고, 세종대왕상보다는 이순신동상이 더 적절했다. 이순신동상의 완공예정일(1967.10.)이 다가오자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 설계변경 내용은 높이를 4미터에서 6.4미터로 더 크게 제작하는 것이었다.²⁷⁾ 이 기간 동안에 서울시의 새로운 계획표본이 진행되었다. 하나는 광화문을 종합박물관 정문에서 중앙청 정문으로 위치를 변경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도로의 2차 확폭으로 광화문 앞길이 100미터가 될 것이라는 계획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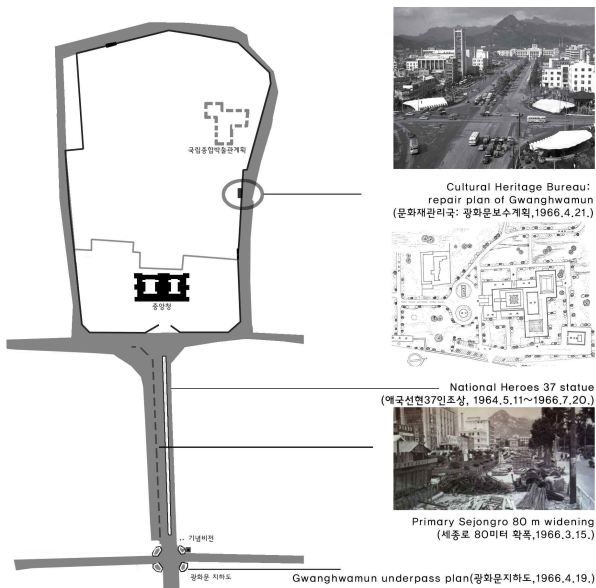


Fig8. Fluctuation of boulevard in front of Gwanghwamun(2기:1964-1967) ©Kang Nan Hyoung

25) 차일석 부시장의 말에 의하면 68년 1.21사태 등의 군사적 방어 개념으로 왜적을 물리친 이순신동상을 상징적으로 광화문에 세우기를 원했다고 한다. (류병학의 1분 미술학교_세종대왕상, 공공의 적?, 경향신문, 2010.3.25.)

26) “이제 서울 세종로 네거리에서 충무공의 동상제막이 있었습니다. 조국과 겨레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 충무공의 정신은 천추만대에 길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민족의 얼이요 정기인 것입니다. 조국을 지키면서 건설하고,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자는 우리의 정신도 곧 충무공의 정신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조상을 가진 우리는 위대한 후손이 될 것을 다짐해야겠습니다. 그것은 곧 오늘날 우리가 추진하는 조국근대화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민족적 대열에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참여해서 힘차게 전진합시다.” (박정희, 1969, 156/재인용: 하상복, 「광장과 정치_광화문광장의 비판적 성찰」, 2009, 47쪽)

27) 조은정, 「애국선열조상위원회의 동상제작」, 내일을 여는 역사 제 40호, 2010

3-3. 중앙청 앞의 광화문 증건

(1) 광화문 앞길의 새로운 청사진

광화문과 광화문앞길의 과거 사진이 등장한 것은 66년부터 광화문 복원계획이 발표되면서이다. 백악산을 배경에 두고 있는 경복궁과 그 정문, 광화문 그리고 광화문 앞길의 사진(조선고적도보)은 서울시계획에 대한 보도기사²⁸⁾와 함께 실었다.(그림 9) 수난을 겪었던 광화문을 드디어 복원하게 된다는 계획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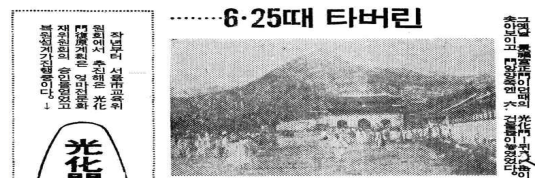


Fig9. Boulevard in front of Gwanghwamun (©The Kyunghyang Shinmun.19670515)

이와 함께 광화문 앞길의 청사진²⁹⁾도 바뀌었다. 서울시가 광화문을 중앙청 정문에 복원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그림10) 당시 육축만 남아있던 광화문에는 정치적으로 갈등이 많았다. 서울시는 민족 문화재로써, 시민과 관광객들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으로 옮기는 ‘복원’사업³⁰⁾을 문화재 관리국은 경복궁 담장과 동구릉, 건원릉 보수 공사와 함께 진행되는 ‘보수’공사³¹⁾로 주장했다. 다음해에는 복원계획으로 뜻이 모아지기는 했으나, 복원될 위치와 방식에 있어서 두 가지 다른 의견이 발표되었다. 예산 1억 2천만원을 들여 중앙청 앞에 콘크리트 구조로 광화문을 복원시키겠다는 서울시와 달리 문화재 관리국은 7천만원의 예산으로 종합박물관의 정문으로 목구조의 광화문을 복원할 계획이었다.³²⁾

28) 동아일보1966,02,17/ 경향신문1967.05.15/경향신문 1968.12.11. 사진의 이름은 “그옛날 景福宮正門이던때의 光化門-뒤로白岳이 솟아보이고 門앞양쪽엔 六건물이 놓였었다.(경향신문1967.05.15.)”이었다.

29) 청사진을 누가 그렸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국보건설단의 강봉진도 투시도 2매를 제작하였지만, 68년 3월1일 복원설계도서를 납품하면서였다. 서울시에서 제시하였다는 청사진은 67년 11월로 그 이전이다. 김현옥 서울시장이 취임(1966년 4월)하고 4개월만에 시청에 쌓여있던 마스터 플랜들을 시청 광장에서 전시하였고, 그 당시 청사진의 실무진일 가능성이 있다. 담당은 건설담당 부시장 차일석, 도시계획과장 윤진우, 계장 최상철이었다. (김서령, 「이 사람의 삶_서울의 열개」디자인한 최초 도시설계사 차일석 박사」, 신동아 2006.4.1. 통권559호)

30) 동아일보, 1966,2,17

31) 매일경제 1966, 4,21
보수공사에 해당되는 공장은 동측공장으로 이미 1월부터, 도시계획상 공장을 훼손하고자하는 서울시와 문화재 위원회의 갈등이 신문지면을 오갔다.

32) (동아일보, 1967, 11,6)
광화문의 복원 복적은 4가지였다. 첫째, 민족문화센터 건립사업

광화문은 실제로 66년 12월 초부터 68년 12월 11일 완공되기까지 두 개의 안이 진행되었다. 당시 종합박물관과 함께 광화문 복원을 진행하던 국보건설단 강봉진³³⁾은 처음에는 석축 위에 나무 누각을 목조로 복원 설계를 진행하였고, 이미 납품까지 진행한 상황이었다. 그에게 다시 중앙청 정문에 콘크리트 구조의 광화문 설계가 요청된다.³⁴⁾



Fig10. perspective drawing of Gwanghwamun restoration planning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nounced (©Seoul Museum of History,1967.9.25)

변경과정에서 그려진 청사진은 2장이었다. 하나는 중앙청을 배경으로 한 광화문의 근경투시도이고, 다른 하나는 광화문 앞길의 투시도였다. 두 번째 청사진에서 광화문은 뒤로는 중앙청과 미술관을 두고 전면에는

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종합박물관의 출입문으로 사용하며, 둘째, 6.25동란의 전화를 회복하며 셋째, 폐허 상태를 없이하여 도시미화에 기여하며, 넷째, 문화유산을 복구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문화재 애호사항을 고취시킨다. (ba135950, 국가기록원)

33) 광화문 복원설계계약(1967.12.21.) 당시 문화재 보수공사 명목으로 강봉진이 선택되었다. 임천의 사망으로 지정문화재설계자격자로는 유일했다. 임영주와 장기인은 문화재보수설계자격을 얻은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다.(1967.1.10.) (ba135950, 국가기록원)

강봉진은 목구조설계에 익숙한 건축가였다. 1960년대 대표적인 한옥 설계 건축가로서, 1962년 건설기술자 면허와 1963년 문화재 설계 기술자 시험에 합격 후 60년대 문화재 실측작업에서부터 한옥을 설계, 시공하는 독보적인 존재였다. 광화문 설계를 전후로도 강봉진은 수많은 정부의 문화재 복원프로젝트에 참여하였으며, 그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콘크리트로 문화재를 복원하는 것이었다. 대표작으로는 1966년 국립중앙박물관(설계 경기 특선)설계를 시작으로 육군 사관학교, 화랑대, 아산 현충사 본전(1966), 국립중앙박물관 구관, 광화문 복원(1968), 서울 국립묘지 현충문(1968), 남산 안중근 의사기념관(1969),국립민속박물관(1972), 서울 국립묘지 현충관(1978), 대전국립묘지 현충문(1980)등이 있었다.

34) 복원공사처리경위문서에 따르면, 67년 3월 10일, '목조로 현위치(건춘문 복축)에 복원'이 67년 11월 16일, '광화문 원위치(경복궁 정문)의 복원'으로 변경되었다. 청와대의 보고 과정에서 목조, 철근콘크리트, p.s.c의 3가지 안과 중앙청 정문 또는 원위치의 2가지 안이 제시되었다. 중앙청 정문에 콘크리트로 구조로 결정된 것은 68년 1월 9일이며 이후 68년 2월 다시 강봉진에게 설계가 의뢰되었다. 광화문 복원공사 제 4차 추진위원회회의록(1968.3.29.)에 따르면, 광화문의 위치는 더 구체적으로 '중앙청 돛의 중심선상'으로 정해졌다. (광화문 복원설계, 보수(일반철)ba0774178 , 국가기록원)

콘크리트로 광화문을 설계할 건축가로는 임영주(임천 고건축 미술사), 강봉진(국보건설단), 장기인(삼성건축사사무소)이 논의되었다. 문화재 실측설계가 가능하고, 건축사사무소 등록자이며, 광화문 복원설계의 유경험자였던 이유로 단시일내에 설계하기 위해 다시 강봉진에게 의뢰되었다.(광화문 복원설계, 보수(일반철)ba0774178 , 국가기록원)

두 개의 고층빌딩 사이의 80미터 도로를 마주보고 있다. 광화문은 백악 앞의 경복궁 정문이 아니다. 월대가 없어 3개의 홍예문은 중앙청을 진입하는 차량의 진출입구로 계획되었다.

광화문을 콘크리트로 중건이 실현가능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³⁵⁾ 첫째, 경복궁의 축소된 사적경계로 중앙청 정문자리는 사적지역이 아니었다. 문화재 관리국은 1963년 당시 경복궁을 문화재로 사적117호로 지정하였고, 그 영역에는 구 광화문이 포함되어있었다. 그러나 중앙청, 경무대 구역과 현대건축물(미술관, 박물관 등)을 제외한 지역을 지정하였기 때문에 서울시는 경복궁 안에서도 콘크리트 광화문 복원이 가능했다. 서울시의 의견은 결국, 광화문을 경복궁의 사적 경계 밖으로 옮기는 작업이었다.

둘째, 고건축 양식을 콘크리트로 번안하는 것에 문화적 의미가 부여되었다. 광화문 앞길에 다시 중건된 광화문은 1960년대의 기술을 통해 고건축양식의 진보를 상징했다. 문화재관리국은 기존의 육축을 해체복원하고 상부의 문루를 콘크리트로 재현함으로써 '특수문화 건설사업³⁶⁾'으로 정의하였다.

(2) 광화문 계획³⁷⁾ 논의의 성격

35) 또 하나의 실현이 가능하였던 이유는 문화재 관리국의 모진동 임야20만평을 불하로 만든 재원확보였다. 매각으로 1억5천만원이 확보되고, 이는 68년 문화재 관리국의 예산이 2억여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그해 문화재 보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사였다. 모진동 임야20만평은 당시 서울 컨트리 클럽이 골프장으로 사용하던 곳으로, 식민시기 유강원(순명효황후능)을 활용한 골프장이었다. 위커힐에 인접한 이 일대를 아시아대회의 유치를 위해 공원에정지로 확보했던 정부가 개회를 포기하면서 서울시는 공원용지를 해제하는 것을 동의하고, 불하된다. 후에 이곳에 어린이대공원이 들어선다.(동아일보,1967.12.20.)

36) 문화재관리국은 광화문 시공 지명업체 7개(화일건설주식회사/평화건설사/신성공업/협화실업/경남기업/공영토건 등)에게 광화문 복원공사를 설명하였다. "우리나라의 유구한 민족문화재 계승사업의 일환인 광화문 복원공사는 그 원상을 찾아 현대식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현 중앙청 정문 위치에 건립하는 특수문화건설 사업인바"(광화문 복원설계, 보수(일반철)ba0774178 , 국가기록원)

37) 광화문 복원공사의 시행청은 문화공보부 문화재 관리국이었다. 중요사건결정을 전달하는 추진위원회와 기술적 문제를 담당하는 전문위원이 지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강봉진, 「광화문의 복원에 대하여2」, 건축사, 1969) 문화재관리국의 관리과는 설계도, 시방서 작성, 복원공사 시공 및 시공과정 기록, 사진촬영, 위치선정에 따른 도시계획 및 기존시설처리에 대한 일체업무를 담당했다.(국가기록원,ba0774178)

시행청	문화재관리국장: 하갑청(河甲淸)		
	관리과장: 엄정흠(嚴政欽)		
추진	영선계장: 최경은(崔慶恩)		
	기술주임(현장감독관): 이래우(李來禹)		
위원회	추진위원:	부위원장:	전문위원:
위원장	김택진(金澤辰)	김상기(金尙基)	
김윤기	윤장섭(尹張燮)	김택진(金澤辰)	정관선(鄭寬善)
	정인국(鄭寅國)	하갑청(河甲淸)	장기인(張起仁)
김允基	장기인(張起仁)	이기주(李起宙)	강봉진(姜奉辰)
	강봉진(姜奉辰)	김병익(金炳益)	

광화문 계획이 발표된 시점부터 신문기사³⁸⁾에 예술인들의 논평이 이어졌다. 크게 3가지의 이야기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광화문 복원의 당위성을 주체성의 문제로 설명한다. 민족문화재로서 광화문을 지어야 한다는 논리이다.³⁹⁾ 둘째, 양식과 기술(재료)을 기준으로 비판 또는 옹호를 하는 입장이다. 없어진 고적은 만들어도 죽은 고적이니 복원을 반대하는 의견⁴⁰⁾과 양식은 그 시대에 기술을 사용하여 가장 흔한 재료를 사용해야하므로 시멘트의 사용은 자연스럽다는 의견⁴¹⁾등이 있었다. 복원 추진 위원회가 ‘영구성’과 ‘목재난’을 들어 콘크리트 구조로 문화재를 재현하는 것에 대한 해명을 비판하는 시인 서정주와 미술평론가 수도룡, 추진위원회의 건축가 정인국의 의견이 실려 있는 1967년 3월 20일자 경향신문의 글은 광화문의 새로운 인식이 드러났다. 건축가 정인국은 광화문을 보존을 위한 문화재의 성격보다는 ‘1968년 시점의 광화문을 본뜬 콘크리트 모뉴먼트’로써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유산과 장소의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도 드러난다. 즉, 광화문의 복원을 현대적 기념물로 서울의 어느 위치에 지을 것인가의 고민을 나누는 장이 형성되었다. 동아일보 1967년 5월 15일자에서 고고인류학과 김원룡⁴²⁾ 교수는 ‘서울의 상징’으로서 공원에서 시청 앞 중앙청 사이에 고유한 전통 유적을 배치하는 것을 제안했는데 이때 외국인에 대한 한국 고유미를 위해 중

양청과 세종로 네거리 사이의 위치에 복원 하는 것을 제안한 것이다.

광화문이 광화문 앞길에 증건하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는 이미 중앙청의 축을 중심으로 도로폭이 확장된 시기였다. 광화문은 중앙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앞길로 이건을 결정하면서, 문화재이면서 도시기념비로서의 역할이 부여된다.⁴³⁾

(3) 광화문 증건설계와 신청부청사

강봉진은 광화문을 콘크리트로 증건하는 것에 의미를 두었다. 처음 목구조로 광화문의 설계가 맡겨졌을 때에도 ‘백년대계의 견지로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광화문을 제안했었으며⁴⁴⁾, 이후에도 양회공업의 잡지를 통해서도 광화문을 ‘고전식(classic style)’이라 하여 고층건물의 한 유형으로 편입시켰다.⁴⁵⁾ 또한, 광화문의 방위와 위치에 있어서 경복궁보다는 중앙청과의 관계가 중요시되었던 것은 그의 글에서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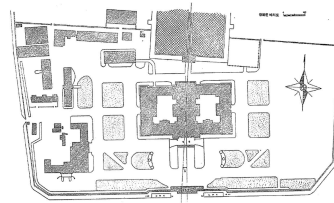


Fig11. Gwanghwamun Floorplan(©Kang, bong-jin,1968)

광화문을 만일 조선시대의 위치로 놓았을 경우 광화문과 중앙청 건물과의 내정이 비틀어지고, 전면도로에도 어긋나게 되어 도시미관이 좋지 않다는 이유였다.⁴⁶⁾

		윤장섭(尹張燮) 정인국(鄭寅國)
시공자 공영토 건희사	현장소장: 민세기(閔世基)	건축주임:구일옥(具一錫) 토목부:이시형(李時衡) 도석수:안기호(安起鎬) 외장:박명갑(朴明甲) 단청장:김제규(金題奎) 전기공:김종석(金鍾錫) 미장:박와우(朴窩雨)
	토목주임:김문형(金文炯) 콘크리트공:이정봉(李廷逢) 철근공:김병철(金炳喆)	
설계자 국보 건설단	대표: 강봉진(姜奉辰) 참여: 원용식(元容植), 최승일(崔承一), 이응묵(李應默), 박종석(朴宗錫) 구조설계:함성권(咸性權) 전기조명:정병준(丁炳俊) 지질감사:윤동진(尹東鎭)	

38) 광화문복원과 관련된 논평은 총10건(동아일보19660226/동아일보 1967.4.11./경향신문19670515/경향신문1968.3.20./동아일보1968.5.2./동아일보 1968.9.5./동아일보 1968.12.19./동아일보 1969.1.14./경향신문 1969.12.17./경향신문1970.4.23.)으로 복원계획이 발표되면서 64년부터 70년까지 꾸준히 발표되었다.

39) 예술원장 박종화(동아일보1969.1.14.)

40) 서소문동 이하병(동아일보19660226)/서정주, 수도룡(경향신문 1968.3.20.)/도련수 이광규(동아일보1968.5.2.)/유주현작가(동아일보19 68.9.5.)/미술평론가 임영방(경향신문1969.12.17.)

41) 신법식 문공부장관(경향신문1970.4.23.)

42) 애국선열조상위원회의 초기 기획본과 위원이었다.

43) 애국선열조상위원회 중 1인이었던 미술평론가, 임영방은 60년대 광화문복원의 문제를 크기 두가지로 설명한다. “광화문 복원을 둘러싸고 야기된 문제는 중앙청사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의 입지적인 조건이 광화문의 설립을 가능케하는지 방해하는지 하는 문제와 이들의 재료로 형성된 역사적인 유산과 광화문을 지금에 재생시키는 이유 등 모두가 문제였었다.”(경향신문.1969.12.17)

44) “문 문화재에 관련된 사항으로 설계 진행상 필요하와 다음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1.건축 구조를 목조로 복원하는지 또는 백년대계의 견지로 봐서 철근콘크리트로 복원하는지의 여부. 2. 목조로 복원할 경우에는 부재규격이 원형대로 할 수 있으나 철근 콘크리트로 복원할 경우에는 양식은 원형과 같이 할 수 있되 공포와 같은 작은 부재의 규격이 약간 큼게 하지 않을 수 없음. 3. 개와는 흑개와로 하는지 청개와로 하는지의 여부” (광화문 복원 설계 작성에 수반하는 질의.1967.2.14., 국가기록원,ba135950)

45) 한국양회공업(현 시멘트 협회)에서 1969년 no29.no32에서 건축가 김희춘, 박윤성, 홍봉희, 강명구, 윤정섭, 김정수가 글을 게재하였다. 다른 호가 국토개발,도시계획과 세계시멘트 사업의 정세를 주제로 다룬 것과 달리 no32는 시멘트와 조형미를 특집으로 하였다. 강봉진의 글은 1960년대를 기존의 양식으로 정의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로 도시형태의 근대화를 이루는 콘크리트 건조물 속에 유일하게 우리나라 고유미와 정신을 보존하는 방법을 고전식이라고 생각했다. (강봉진, 시멘트와 조형미, 한국양회공업, no32, 1969, 18~23쪽)

46) “광화문을 만일 원래위치대로 앉히자면 광화문과 중앙청 건물과



Fig12. Gwanghwamun Ceremony and Government Complex ©National Archiv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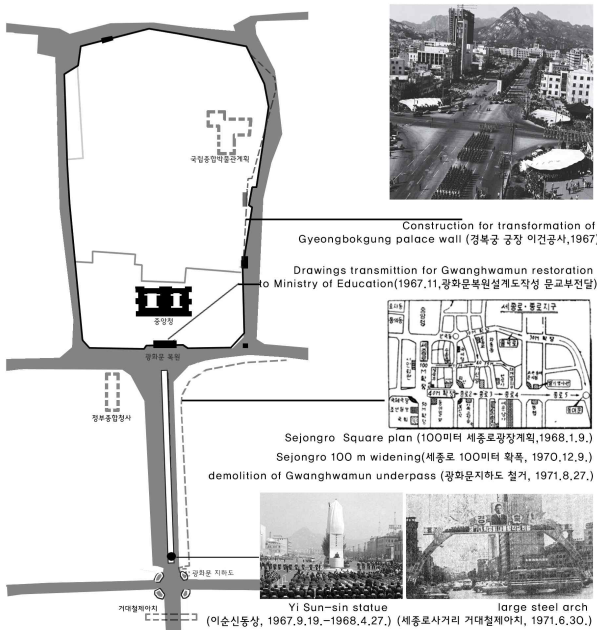


Fig13. fluctuation of boulevard in front of Gwanghwamun(3기: 1967-68) ©Kang Nan Hyoung

광화문의 복원 위치 뿐 아니라 광화문 앞길의 물리적 크기와 성격에 있어서도 중앙청은 기준이 되었다. 중앙청을 복구한 이후 국가 상징거리로 축 상에 도시기념비만을 시도한 것은 아니었다. 앞길로 중앙청 뿐 아니라 중앙청 맞은 편 동과 서에 정부종합청사를 계획하고 지하를 연결할 예정이었다. 실제로 광화문 공사는 정부종합청사 공사가 함께 진행되었다.⁴⁷⁾ 정부종합청사는 중앙청 맞은 편 대지로 1,2차로 나누어 지을

의 내정이 비뚤어지고 전면도로에도 어긋나게 되는 결과가 되어 도시미관상 좋지 않을 것이므로 중앙청건물에 평행으로 앉히면 원래의 방위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주위환경과는 평형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결국 광화문은 원 방위와 약간 다르다 할지라도 중앙청 건물에 평행하게 앉히기로 한 것이다.”(강봉진, 「광화문의 복원에 대하여」, 건축사, 1968)

47) 그러나 정부의 기조가 대도시 인구억제와 수도권 분산계획으로 정해지면서, 2차 청사는 지어지지 않았다.(경향신문,1970.2.7.‘백지화된 종합청사입주계획’)

예정이었지만, 수도권분산정책으로 2차는 무산되었다. 광화문 앞길은 66년 서측 도로를 확폭하고 70년 동측 도로를 확폭하는 시간차를 갖고 100미터의 광장으로 변화되었다. 광화문중건(1968)은 국가중앙행정부의 계획과 함께 100미터를 확폭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광화문의 중건은 또 한 번의 광화문 앞길의 변화를 의미했다.⁴⁸⁾ 광화문이 이 건된 이후 국가도로로써 장방형의 광화문 앞길(세종로 광장)주변은 특별구획정리를 통해 경복궁과 후원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부 이외에도 서울에 흩어진 행정부서를 모으는 정부종합청사의 계획이 시작되었다.

4. 맺음글

1960년대 광화문 앞길의 변화를 정리하여 광화문 중건의 성격은 몇 가지로 도출될 수 있다. 광화문을 포함한 앞길의 변화는 주어진 큰 그림에서 시작되지는 않았다. 앞길의 변화를 중심으로 광화문 중건, 이순신동상, 도로의 확폭 등이 사건들을 정리해보면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처음 인식의 변화가 있었던 1기(1962-1964, Fig4)에는 중앙청(구 조선총독부)의 전용이 앞길 변화의 동인이 된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상징적 공간이었던 중앙청은 한국전쟁이후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태였다. 파괴된 공간에서 반공이 강조되던 장소는 3공화국에 의해 미국의 원조를 받아 중앙청으로 복구된다. 이때 중앙청은 과거의 식민통치시설로써 건립추체가 문제되지 않았고, 오히려 근대유산으로 가치가 부여되었다. 이러한 유산의 활용은 군사혁명1주년 산업박람회도면(1962)에서 보듯이 구 광화문에도 해당되었다. 경제재건과 발전상을 극대화하기 위해 유산의 보존보다는 활용이 중요시 된 것이다.

2기(1964-1967, Fig8)에는 광화문 앞길의 성격이 변화된다. 광화문 앞길이 중앙청의 앞길이 되면서 도시기념비의 성격이 부여되었다. 처음으로 광화문 앞길에는 동상(애국선열동상(1964-1966),이순신동상(1967.9.19.-1968.4.27))이 계획되고 국가의 퍼레이드를 감안하여 보행동선을 수정하는 광화문 지하도(1966-1971)가 계획되었다. 이 시기까지 광화문은 앞길과 관계가 없었다.

48) 서울 시청 앞에서 열렸던 ‘대도시 서울도시계획’전시(1966.8.15.-9.15)는 이러한 논의를 담고 있었다. 당시 아시아 계단의 지원으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대형모형을 중앙에 설치하고, 남산공원계획, 금화재개발 계획 등 23종의 모형과 도면이 길이 50미터 너비 40미터의 가건물 안에 전시되었다. 이때부터 서울시의 과제는 민주주의 독립국가의 수도로써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자리를 어떻게 하느냐였다. 당시 전시에 사용된 수도 서울의 청사진은 미국 수도 워싱턴 DC를 모델로 해 한양대 교수이던 이성욱 박사와 도시계획 이론가인 주원박사가 실무를 맡아 진행했다.(김서령, 2006.4.10)

오히려 앞길의 폭을 확장하는 기준은 중앙청이었다.

3기(1967-1968, Fig13)에는 광화문의 위치와 재료가 변화된다. 광화문은 두 번의 설계가 진행되어, 종합박물관의 정문에서 중앙청 정문으로 위치가 변경되었다. 이 과정에서 콘크리트 증건으로 계획된다. 국가기록원 공문서와 설계건축가의 글은 콘크리트로 세우는 것에 문화적 의미가 부여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또한 신문기사의 논의를 통해 광화문은 문화재와 도시기념비 사이의 인식이 혼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2기의 과정(앞길의 도시기념비성의 시도)이 기반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서울시가 경복궁 안에서도 콘크리트 광화문 복원이 가능하였던 것은 축소된 사적경계 때문이었다. 사적 경계 밖의 광화문은 ‘유산의 현대화’라는 서울시의 의도를 가능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다시 광화문 앞길의 물리적 크기가 변화된 4기(1968-1972)이다. 서울시의 새로운 청사진은 수도상징거리의 일환으로 이 건된 광화문을 암시한다. 앞길에 국가의 행정기구(중앙청과 2개의 고층빌딩)를 집중하고자 100미터로의 2차 확폭을 예정하고 있었다. 광화문 이 건 결정이후 이순신동상의 크기도 높아지는 등 중앙청- 광화문-광화문 앞길-이순신 동상의 관계가 만들어졌다.

광화문은 건축물이기도 하지만, 경복궁이 도시와 만나는 영역이다. 특히 광화문의 앞길은 도시공간의 역사적 경험이 누적되어 있는 소중한 장소이다. 식민지와 전쟁의 경험으로 기록을 통한 복구와 도시공간의 재편이 반복되어왔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광화문의 건축적 분석보다는 광화문 앞길의 변화라는 외부적 조건을 중심으로 성격을 정리하였다. 중앙청의 중심축은 광화문 앞길 변화의 기준이 되었다. 앞길의 폭에서부터 광화문, 이순신동상의 위치, 방위 등은 근정전이 아닌 중앙청 돔을 중심으로 계획되었다. 광화문 앞길의 새로운 성격에 맞추어 광화문은 증건되었다. 광화문 증건(1968)은 유산의 보존보다는 유산의 현대화가 중요한 가치로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References

1. Hong, Soon-Min, 「Reorganization made to the governmental offices outside the palace in front of the Gwanghwamun Gate, in the early days of king Gojong's reign」, The Journal of Seoul Studies, 2015.
2. Cho Eun-jung, 「Figures and monuments built to commemorate Lee Syng-man」, The Journal of Korea Modern Art History, 2015.
3. Kim, ji-hong. 「Reconstruction of Tradition in National Monument Projects during the 1960s and 70s

in Korea」, Architecture. Dis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4.

4. Lee, Soon-woo, 「The Governmental Offices Arrangement and Location Change at The Gwanghwamun Yukjoapgil(The Street in front of The Six Boards) during The King Gojong Era, The Hyangto Seoul, vol 78, 2011.
5. Cho Eun-jung, 「Social History of Art (4) Statue production of National Heroes Statue Committee」, The Journal of OPEN TOMORROW HISTORY FOUNDATION No. 40, 2010
6. Kim, Baek-Yung, 「Spatial Sociological Analyses on 4·19 and 5·16 : Spatial Focusing on Politics of Public Space in Seoul」, Humanities Journal, Vol.38, 2010.
7. Park Hye-In, Kim Hyon-Sob, 「A Study on the Change of Consciousness in Korean Architectural Circles through the Demolition Matter of Chosun Government General Building.」,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 26, no 10, 2010.
8. HA Sang Bok, 「The Politics of Gwanghwamun - art and representation of political power」, Kore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43, no3, 2009.
9. Kim, Dae-Ho, 「Destruction and Convertsion of Gyeongbokgung Palace after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Journal of Seoul Studies, vol,no29, 2007.
10. Sohn Jung-Mok, 「A Study on Construction of Chosun Government General Building and the Kyungsung Municipal Government Building」, The Hyangto Seoul, vol48, 1989.10, 99-101p
11. Kim, Yun-Gi, 「'30 Reminiscences」, Architectural Journal, vol19, no4, 1975.8.
12. Kang, Bong-Jin, 「A Study on Gwang-hwamun Reconstruction」, Architects, v3 no10, pp57-63, 1968
13. Kang, Bong-Jin, 「A Study on Gwang-hwamun Reconstruction」, Architects, v.4 no.11, pp.50-54, 1969
14. Kwon, Boduerae, Jung Hwan Cheon, 「questioning of 1960.(1960년을 묻다)」, imagine 1000, 2012
15. Seoul Museum of History, 「Gwanghwamun Sonata, spin back the clock.」, (주)작품오늘, 2009
16. Seoul Museum of History, 「The Maps of Seoul」, 2006
17. Cha, Il-suk, 「The eternal dream: testimony for

18 논문

Seoul』, Dongsuhbook, 2005.

18. Hobsbawm and Terence Ranger, eds,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19. Jae Ho Jeon, 『Reactionary modernist Park Jeonghee』, bkworld, 2000.

20.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景福宮 光化門 圈域 重建報告書』, 2011

21.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景福宮 變遷史 (上)』, 2007

22. 朝鮮古蹟圖譜

23. Kill, Yun-hyeong, “People and society: Why Gwanghwamun is applied to concrete”, The Hankyoreh Journal 21, no 642, 2007.01.05.

Received (4.15.2015)

Revised (6.24.2015)

Accepted (8.27.2015)